



예거 르쿨트르, 동서양의 예술적 전통을 결합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키리후리 폭포’ 모델 출시

약 2천년 동안 이어진 아시아와 유럽 간의 양방향 문화 교류는 시각 예술에서 공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예술 형식 뿐만 아니라 직물, 유리 및 도자기 생산 기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 역사 전반에서 이러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맞이한 예거 르쿨트르는 새롭게 선보이는 정교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위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기념합니다.

키리후리 폭포(Kirifuri-no-taki)

유럽 장인기술과 일본 미술을 결합한 케이스 뒷면은 1830년대 초 가쓰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가 선보였던, 키리후리 폭포(Kirifuri Waterfall) 목판화를 충실히 재현한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동양 미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키리후리 폭포(Kirifuri Waterfall)*는 1831년과 1833년 사이, 작가가 일본 본섬 혼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았던 폭포를 묘사한 8장의 목판화 작품인 *지방 폭포 순방기(Waterfalls of the Provinces)*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랑 메종의 창의성과 예술 및 문화에 대한 비전을 담은 이 새로운 위치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진귀한 수공예)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장인들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증명합니다.

케이스백을 시작으로, 세심하게 조정된 과정을 통해 완성된 타임피스의 장식은 이러한 예술 작품 특유의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37 x 24.5cm 크기의 작품을 원본 크기의 1/10이 조금 넘는 표면에 재현함으로써, 폭포 아래에 있는 작은 인물들을 포함한 모든 디테일을 완벽한 규모로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호쿠사이는 산비탈 100m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힘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키리후리* 폭포에서는 그의 전작보다 더 웅장한 원근감과 대담한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이를 완벽하게 모방할 뿐만 아니라 에나멜링과는 전혀 다른, 특정 스타일의 목판화 기술을 보는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까다로웠던 부분은 여러 개의 목판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색상이 차례로 적용되는 다색 판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본에서 볼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와 그라데이션 컬러의 *보카시(bokashi)* 효과를 재현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착시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와 도피네 핸즈가 장식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의 간결함은 이러한 장식의 아름다움에 완벽을 더해줍니다. 케이스백의 미니어처 페인팅에 예술적으로 부응하는 다이얼은 흘러 넘치는 폭포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색다른 물결 모양의 기묘세 패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독특한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캠이 장착된 100년 된 선반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완성된 파도의 시각 효과는 부드러운 그린 톤의 투명한 그랑 퓨 에나멜 층으로 더욱 극대화되어, 반대편에 자리한 그림의 디테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나멜 층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번 소성한 이후 마지막 과제는 인덱스를 완벽하게 적용하고(에나멜의 깨끗한 표면을 통해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함), 레일웨이 미닛 트랙 레지스터를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에나멜링과 마찬가지로 소성 과정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색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의 앞면과 뒷면의 모든 다이얼 색상이 뒷면의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호쿠사이의 오리지널 컬러를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시간 이외에도, 약 5시간의 기묘세 작업과 투명한 그린 에나멜 층에 대한 8시간의 작업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미니어처 작품을 채색하는 데만 70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호쿠사이 소개

서양에서 잘 알려진 일본 예술가인 호쿠사이(1760 년-1849 년경)는 삽화가이자 판화 제작자, *우키요에(ukiyo-e)* 예술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80 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작품 중 하나인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Kanagawa oki nami ura)*를 포함한 기념비적인 목판화 연작인 *후지/이산 30 경(Thirty-Six Views of Mount Fujil)*을 통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2018 년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모델을 통해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으로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를 재현하여 경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1600 년-1868 년) 상인의 향락적인 생활상을 묘사한 *우키요에* 회화의 열풍에 힘입어, 이 그림들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서 17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목판화가 번성했습니다. 구성과 색채 사용에 있어 혁신적이었던 호쿠사이는 *우키요에*를 초상화 스타일에서 풍경과 동식물을 포함하는 더 폭넓은 장르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명성으로 인해, *우키요에*와 목판화는 일본 미술에 대한 서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케이스: 화이트 골드

크기: 45.5mm x 27.4mm x 9.73mm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매뉴얼 와인딩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334T2 -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 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